

제30회 법무사 헌법시험에 대한 총평

법무사 시험을 치르신 수험생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올해 법무사 헌법시험의 난이도를 평가하면,

① 전형적인 지문 구성방식이 아니라 출제위원이 작위적으로 만든 지문의 비중이 높았다는 점, ② 판례의 결론을 묻는 지문은 29개 출제된 반면, 판례의 이유 부분을 묻는 지문이 50개나 출제되었다는 점, ③ 헌법 조문보다 국회법이나 정당법 등 법률 조문의 내용을 묻는 지문이 많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체감난이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다만, ① 지문의 길이가 길지 않았다는 점, ② 헌법총론은 출제되지 않았다는 점, ③ 기출판례가 다수 출제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쟁점 및 지문의 구성상 특징을 살펴보면,

헌법총론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기본권(기본권의 주체,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국가인권위원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², 평등권, 재산권,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², 직업선택의 자유, 신체의 자유²) 12문제가 출제되었고, 통치구조(대통령 2개, 탄핵심판제도, 헌법재판소, 정당제도, 선거제도, 지방자치제도, 국회) 8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100개의 지문 가운데 헌법조문은 6개, 법률조문 15개, 판례지문은 79개로 구성되었습니다.

제30회 법무사 헌법시험은 종전 기출문제 정리 방식만으로 대비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헌법을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법무사 수험생들로서는 헌법 수업시간 만이라도 충실히 정리한다면,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